

통일과 심리적 화합

吳壽星

- I. 서론
- II. 망상내용속에 나타난 적색공포
- III. 교과서 내용에 나타난 적색공포
- IV. 반공이데올로기와 적색공포
- V. 연좌제와 연관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
- VI. 맺음말

I. 서론

1990년 10월 3일 지구의 서쪽 독일에서는 자유의 종소리 속에서 통일된 독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분단 이래 독일 국민들의 강력한 통일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의 가능성은 오히려 점점 희박해졌던 사실을 감안하면 평화적 방법으로 그렇게 급속히 진전된 독일의 통일과정은 분명히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독일의 국내적 현실은 통일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국내적 통합과정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그 과정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관한 예측이 매우 혼란스럽다는 사실에서 통일의 후유증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통일이라는 것이 종국적으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제도나 경제체제와 같은 외형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이 통일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40년간의 분단이 동서독 사람들간에 넘을 수 없는 마음의 장벽을 가로놓게 하였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동서독 사람들이 같은 입장이 아니라, 동독사람들이 스스로를 독일의 2류계급으로 의식하고 서독사람에 대해 마음속으로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열등감은 통일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여러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경제적인 통일은 이루어졌으나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험은 비록 분단과 통일의 상황 조건등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들이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리·정서적인 면에서의 통일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하여야만 한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면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일체감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통일을 이루려면 일체감을 가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알아보고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는 통일의 저해요인들이 제거되어야만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요소들이 통일의 저해요인인가? 이것은 여러가지로 고려될 수 있겠지만 심리학적으로 주목되어지는 것이 적색공포(red complex)이다.

해방공간을 통하여 좌,우 대립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채 한국전쟁을 겪은 후에 하나의 이념으로서 반공이데올로기가 받아들여지고 철저한 반공교육의 영향으로 분단의 고착화는 더욱 굳어졌다. 전쟁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 모두에게 빨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complex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적색 공포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사회과학 분야

에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금기시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적색공포의 극복이야말로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통일의 전제조건이라는 가정하에 적색 공포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망상 내용속에 나타난 적색 공포를 알아보고, 교과서 내용에 나타난 적색공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적색공포와 반공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알아보고, 연좌제에 연루되어 심리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적색공포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망상내용속에 나타난 적색공포

정신병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망상이 그 내용의 표현에 있어서, 그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문화권을 달리함에 따라 망상내용의 형성 또는 변화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망상에 대한 사회전반의 개념과 태도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망상의 내용 및 표현되는 형태는 바로 그 환자가 속해있는 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신병환자의 망상을 통해 그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망상내용 중에서 적색공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피해망상속에서 피해를 주는 대상으로써 박해자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1956년에서 1961년에 이르는 5년동안의 환자들을 조사한 연구(이병윤과 민병근, 1962)에서는 남자환자들의 피해망상속의 박해자 대부분이 당시의 정치 또는 시국과 관련되는 인물들로 이루어진다. 즉 빨갱이, 인민군, 스파이등 남북분단의 현실과 직결되는 인물(26.3%)과 수사관(26.3%)이 전체의 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빨갱이가 많은 것은 외국과 다른 우리의 정치현실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장환일(1992)의 연구에서 의하면,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주로 북한과 관련된 인물이나 기관(공산당, 인민군, 빨갱이, 간첩 등)이 피해망상속의 박해자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국내의 권력기관과 관련된 인물이나 기관(수사기관, 경찰, 군인 계엄군, 정치지도자 등)이 박해자로 등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70년대에 들어와서는 환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인물들(친구, 동료, 이웃사람, 가족, 친척 등)이 제일 많이 박해자로 등장하고, 두번째로는 역시 국내 권력기관과 관련된 것들이 박해자가 되고 적색공포와 관련된 빨갱이 인민군은 거의 박해자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70년대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은 사람들이 박해자로 등장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해방이후 우리사회가 겪어야했던 정치, 사회, 문화적인 변천과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개인의 내적 갈등은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투사되어진다. 자기 특유의 방법으로 유별난 대상에 투사하기보다는 그 문화권에 속해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화에 적용하는 정신병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신병적 망상이 그 문화에서 수용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환자들에 흔히 나타나는 망상이 남북분단의 현실과 연관된 피해망상이었다. 이는 빨갱이, 인민군, 스파이, 수사관 등 적색공포와 연관된 것이 당시의 정치상황과 반공이데올로기, 연좌제등과 연관되어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환자로 하여금 적색공포와 연관되어 망상의 투사대상으로 쉽게 선택하게 만들었다. 환자들은 그 대상에 자기 내적 갈등을 투사함으로써 그 당시 정치상황에 적용

하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광일과 박용원(1983)은 꿈의 내용에서 등장하는 박해자와 정신분열증 환자의 피해망상에서 나타나는 박해자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들은 꿈과 망상을 그 내용 형성과정에 작용하는 정신기제가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에서 비교의 의미를 찾았다. 그들의 연구결과에서 정상인의 꿈에서 등장하는 박해자로서 적색공포와 연관된 빨갱이, 인민군이 16.6%로 출현 빈도가 제일 높았으나 망상내용에서 박해자로 빨갱이, 인민군은 0.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꿈속의 박해자는 망상속의 박해자에 비해 시간적으로 먼 과거에 경험하고 암시를 받는 대상이나 공간적으로 비교적 먼 대상에게 내적 적개심을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과 정상인의 꿈의 내용은 문화적 경험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간격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상속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공산당, 인민군, 빨갱이등이 정상인의 꿈속의 박해자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이란 시간적으로 오래전부터 계속 받아들인 문화적 경험과 암시에 해당하는 대상이며 최근에 거의 관념화되어 버린 대상인 것이다. 또한 망상속에서는 현실 생활의 주변의 대상에 투사하고 꿈속에서의 투사는 비교적 현실보다 비현실적인 대상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적색공포라는 complex로 작용하여 오랜 기간 무의식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현실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꿈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III. 교과서 내용에 나타난 적색공포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내용 중 반공과 관련된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학교 교과서중 「도덕」, 「바른생활」을 택하였다. 국민학교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 단일화되어 있으므로 다른 시기의 교과서에 비해 정치권의 의도가 가장 공식적이고 분명하게 표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때의 학습된 내용들은 일생의 기본적인 바탕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945년 미 군정하에서 개정된 「교수 요목」으로 출발하였으며, 도덕과 교육과정은 일제시대의 「수신과」가 폐지되고 「공민과」에 통합되어 제시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교육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설정도 준비하게 되었으나 한국 전쟁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부역자와 적색 분자가 쓴 검인정 교과서는 전부 허가 취소되었다. 그러다가 1954년 각급학교 「시간 배당 기준령」을 공포하게 되어 반공, 반일교육이 매학년 주당 1시간씩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령을 토대로 1955년에 제 1차 교육과정이 최초로 공포된다. 이 교과과정은 1963년, 1973년, 1981년, 1986년의 4차례에 걸쳐 개정된다. 1963년 제 2차 교육과정때에는 공식적으로 반공, 도덕생활이 들어가고 매학년 주당 2시간으로 늘려 반공, 도덕 교육을 강화하였다. 1981년 제 4차 교육과정때에는 저학년의 경우 도덕, 사회, 국어를 바른생활이라는 통합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큰 정치적 변혁이후 정권이 바뀐 후 1-2년의 시차를 두고 반드시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만큼 정권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됨을 나타내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의 「도덕」, 「바른생활」 교과서는 1959년, 1963년, 1973년, 1981년 그리고 1988년 5시기의 개정된 교과서를 택하였다. 그리고 반공에 관한 범주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

기, 북한의 참상, 공산당의 만행, 외국의 반공투쟁, 반공의식 고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분석은 주제(topics), 쪽(pages) 그리고 그림(pictures)별로 양을 비교 분석한다. 결과는 교과서에 나타난 반공에 관한 주제, 쪽 그리고 그림 모두에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즉 반공에 관한 내용의 양이나 그림, 그리고 전체에 대한 구성비율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반공의식이 어린이의 인지능력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시기별로는 교과서에 나타난 반공에 관한 주제, 쪽 그리고 그림 모두에서 1963년 제 2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제(58.2%), 쪽(57.3%) 그리고 그림(42.9%)도 거의 교과서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반공의식의 내용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매학년 주당 1시간에 2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는 군사정부가 극도로 혼란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적 결속을 이루는 동시에 새 정치체제로서의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공 이상의 이데올로기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 3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 나타난 반공에 관한 주제(47.4%), 쪽(44.2%) 그리고 그림(30.7%)은 제 2차교육과정에 나타난 것보다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절대수에서는 비슷하다. 반공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첨가시켜 정권과 국가의 동일시, 국민총화, 사회 혼란의 제거, 국민화합 그리고 질서 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1981년 제 4차 교육과정과 1986년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반공의식에 관한 것이 20%내외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반공 교육이 통일안보 교육으로 명칭이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칭을 달리 했지만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기본 입장은 크게 달라지

지 않았다. 아직도 개편 교과서에서는 분단 고착화를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반통일교육적인 면이 나타난다. 종전의 반공논의가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고취하는 양상을 띠고 나타났던 것에 비교하여 북한을 마치 다른 민족처럼 규정하여 분단 고착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IV. 반공이데올로기와 적색공포

반공이데올로기가 한국사람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개념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것이다. 한국의 반공이데올로기는 국민을 강하게 결속시키는 기능을 해 준 최고의 국가이념이었을 뿐아니라 기존 질서를 의문시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갈등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였다.

전후 냉전체계의 구축과 함께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등에서도 한때 반공의 바람이 몰아쳤지만 이토록 오랜 세월동안 사회성원을 강력하게 결속시키고, 반대파를 제압할 수 있는 금기로서 위세를 발휘해 온 곳은 한국밖에 없다. 나는 반공주의라는 자기해명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의 면죄부요, 특허장이요, 만능의 열쇠였고, 너는 빨갱이라는 낙인은 테러와 고문, 연좌제 그리고 40여년이라는 세계 최장의 기간동안 감옥에 유폐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었다(김동춘, 1992).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사회주의, 자본주의등 정치적 교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의 심리,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이데올로기가 인간에게 주는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생성근거가 단순한 사회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본

래적 정서, 불만 그리고 욕구 등 실존적 조건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Therborn, 1980). 이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는 사회성원들에게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과거와 현재를 설명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관계의 반영이지만, 동시에 생산의 주체, 삶의 주체의 정신구조의 반영이며 이 때 정신구조의 모순과 긴장의 강도에 따라 이데올로기 성격이 달라진다. 즉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정신적 긴장의 해결책이기도 하고, 정신적 불균형 상태의 처방이기도 하다(Geertz, 1973). 정서적 긴장은 상징적인 적을 만들어 냄으로써 배출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데올로기는 욕구와 현실의 간격을 메워주고, 좌절과 실의에 빠질지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준다. 이때 이데올로기는 변호적 설명(Advocacy Explanation)이 된다(Geertz, 1973).

한국에서의 반공이데올로기는 알게 모르게 우리 정신구조에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체험속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에 반공이데올로기와 적색공포가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게 된다. 즉 반공이데올로기가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정신 구조속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적색공포로 그 유형을 달리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반공이데올로기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알아보자. 흔히들 우리 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 전후에 형성된 것으로 주장되어 왔으나 그 보다 훨씬 이전인 일제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정영태, 1992). 일제는 3.1운동과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고양되는 민족해방운동이 공산주의 운동과 결합되는 것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민족 해방운동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조선인 계급간의 대립을 부각시키는 민족분열정책의 일환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해방후에는 친일세력과 우익개량주의들이 자신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은폐, 호도하여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공을 점령정책의 기초로 한 미군정과 함께 반소, 반공이데올로기를 적극 확장하였다.

그러나 친일 세력과 미 군정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민족 대다수에게 이렇다할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반공이데올로기가 대다수 민중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한국전쟁을 경과한 후이다. 한국전쟁이 가져온 본질적인 결과는 남북분단을 고착화 시키고 남북간의 이질화, 특히 남북 쌍방간의 상호 증오하는 갈등구조를 형성시킨 것이다. 한국전쟁후의 반공이데올로기는 한국의 보수지배세력과 친일세력의 계급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민족을 희생하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민족, 애국은 우익이고, 반민족, 매국은 좌익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창출하였다. 여기에 북한에서 월남한 일부 사람들이 그들이 당한 정신적 긴장을 상대방에 대한 복수를 동반하는 이데올로기로 정형화되었다. 공산주의는 악귀, 빨갱이, 흡혈귀, 적색비색 등으로 모든 악을 상징하였고 개인과 개인간의 원한에 의한 살해도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시작하였다.

전쟁은 남북양측에 잔류하고 있는 적대적 인사에 대한 대규모 처형을 초래한다. 북한에 밀려 후퇴하기 시작한 이승만정부는 각 지역의 보도연맹 가입자를 한 곳에 모아 처형하였다. 처형은 전쟁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한편 북한이 남한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좌익인사 처형에 앞장 선 남한내 우익 인사와 그 가족들은 반동분자와 인민의 적으로 간주되어 대량적인 보복의 대상이 되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을 버려두고 남하한 지배층과 지도층(도강파)은 이제 어쩔수 없게 남게된 많은 사람들(잔류파)에 대해 승리자처럼 군림하면서 부역의 혐의를 씌워 심판하였다. 전쟁의 체험은 모든 민족성원을 그들의 사회적 기반에 관계없이 실존적인 상황에 내몰려쳐진 개인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보통사람들에 있어서 전쟁의 참화는 그들을 정신병적인 상태로 내몰았다. 반드시 피해를 당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동족을 죽이는 일을 성전이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현실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데올로기는 폭력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들은 우선 생존을 도모하였다.

다음의 예는 당시에 흔한 것이었다.

「북한에서의 내무서원 경력- 초상집의 밤샘 화투놀이- 내무서에서 쫓겨나고 반동분자로 낙인- 1.4 후퇴당시 월남- 김창룡이 피난온 사람중 빨갱이가 많다고 한 사람의 밀고에 대한 만환의 상급 부여- 평소의 개인적 원한과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밀고당함- 무기징역 선고, 이 일을 당한 사람은 “이놈들아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 나를 내놓지 못하겠느냐!”라고 고함치다가 옥문에 부딪쳐 사망하였다(최문석, 1971).

남한에서의 침예한 갈등,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집단간의 적대감, 정신적 긴장 그리고 보복심리등이 결합하여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멸공(공산주의는 무조건 없애야 한다)이라는 일반적인 논리로 발전된다. 따라서 전쟁후 한국의 반공주의는 전 근대사회에서의 터부 혹은 종교일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종교가 개인의 정신적 긴장을 배타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주듯이 전쟁 후의 반공주의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다수의 피해 다중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공의 이념을 내면했다기 보다는 단지 전쟁체험의 공포 때문에 이데올로기 지배를 용인하였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 전쟁 후 한국에서의 반공주의는 고해성사를 요구하였고(빨갱이를 욕하지 않으면 빨갱이로 낙인찍히는 분위기) 그들을 의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집단병리적인 것이었다.

5.16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더욱 확대 강화하였다. 남북한 대립구조를 경제적 경쟁관계로 전환시켜 경제개발이라는 민중의 요구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남북대립에 대처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대한 도전은 곧 분단과 남북대립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환원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군부의 경직된 성향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사회내적인 저항을 이데올로기적 저항으로 환치시켜 탄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그들은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강화·개정등을 통해 용공분자라는 이름으로 혁신계 및 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하였다.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정보의 독점과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 규제 활동을 전담하면서 수구적인 반공의 차원에서 전향적인 반공정책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30년에 걸친 군사정권이 자기의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적색공포는 하나의 complex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정신구조의 모순과 긴장이 첨예하면 할수록 내적 적개심은 적색공포로 심화되어 갔다.

V. 연좌제와 연관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

인민군에 의하여 점령당했던 3개월, 그 동안 끝까지 몸을 숨겼던 사람이건 일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부역을 한 사람이건 간에 서울이 탈환되었던 1950년 환희와 재생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과연 국군이 돌아왔다. 진짜 정부도 되돌아왔다. 용케 한강을 넘어 피난을 갔던 사람들(도강파)도 되돌아왔다. 그들이 서울에 진입하기가 무섭게 부역자를 엄단한다는 방침이 선포되고 잔류 서울 시민들(잔류파)은 그 심사대상이 되었다.

한국 전쟁직후에 재빨리 남하한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탈출할

시기를 놓쳐서 소위 도강파보다는 잔류파가 절대 다수였다. 이미 수원을 거쳐 대전에서 안전하게 도피했던 정부는 서울을 사수하라는 선무공작을 계속하면서 피난길을 막았다. 도강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전황이 불리함을 미리 귀땀받았거나 정부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소수 도강파는 절대다수의 잔류파를 향하여 심리적 억압과 공세를 취해왔다. 이런 현상은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라 인민군이 지배했던 지역에서는 어디에나 있었던 일이다.

전국의 모든 지역과 각 분야에서 부역자의 심사, 분류작업이 시작되었다. 자수자와 검거된 자를 포함하여 당국에 의해 인지된 총부역자 수는 최종적으로 550,915명 이었다. 실제로 부역자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사람들의 고난은 상당히 심각하였다. 단순히 구금생활을 하였다는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이들과 그 가족들이 계속 부역자라는 낙인을 붙이고 다녀야 했다. 부역자라는 이름만으로 취업의 길이 막히고 공직 취임을 거부당했다. 더욱 이들이 가슴을 처야 했던 것은 그 일가친척과 자손까지도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른바 연좌제라는 이름의 그물이었다. 그들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부역자의 가족은 관리되고 점검되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공개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던 연좌제가 다시 논의된 것은 1980년 8월이었다. 이른바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이 연좌제를 전면 철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집권한 군부정권은 무엇인가 국민의 인기를 끝만한 방책을 찾고있던 중이었다. 당시 국보위는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6.25동란중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본의 아니게 저지른 경미한 과오 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좌경입장에 있던 가족, 친지등 제 3자와의 관계에 의해 등록된 기록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사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당해 왔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연좌제를

철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1990, 박원순) 그러나 위와같은 의지 표명과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좌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1984년에 정부는 6.25부역자에 대한 행정상 신원관리기록을 모두 삭제, 앞으로 이들의 해외여행이나 공직 임용등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이 당시 대공신원 기록이 삭제되는 6.25 부역자는 5천 명선이었고 당시까지도 생존하고 있는 부역자는 5만명 정도라고 추산하였다.(1990, 박원순) 현실적으로 구속과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부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 외형적으로 그와같은 제약을 벗어나 훌륭한 변신과 사회적 진출을 하고 있는 부역자에게도 그것은 같은 크기의 고통일 것이다.

VI. 맺음말

연구자는 적색공포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회생양이론을 설정해 보았다. 이 이론은 어떤 집단이나 대상을 가상적인 적으로 상정하여(feind bilder) 그들을 회생양으로 하여 나머지 사람들에게 통합성이 생기는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역대 통치자들은 북한 또는 북한 사람들을 회생양으로 상정하여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가진 남한 사람들에게 적색공포를 조장함으로써 반공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통합의 기제로 사용하였다. 나치즘을 통해 독일인을 동원할 때 반유태주의라는 보조적 감정을 이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한국에서 정치적 변혁(한국전쟁, 4.19혁명, 5.16군사 쿠데타, 유신 그리고 광주항쟁 등)의 고비마다 통치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회색시키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또한 쉽게 범주화할 수 없는 집단적 감정의 덩어리를 적색공포로 유발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이지 못하게 하

여 통치하기 쉽게 만들었다. 희생양이론은 지역갈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내외의 여러 사정으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통합기제로 약화되자 호남-반호남의 갈등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호남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상정하여 또 다른 통합의 기제로 이용하였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양을 통해 좌절과 갈등의 돌파구를 찾고 정서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개인의 무의식에 적색공포가 잠재되어 있어 사람들은 희생양에 대해 내적 적개심을 투사하여 정서적 균형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또는 반공교육을 받게 되면서 하나의 complex로 작용하여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었다는 가정도 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색공포와 연관된 앞으로의 연구는 사회과학의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철저히 되어져야 하겠다.

평화통일 운동의 실천은 곧 자기부정의 논리이지 않으면 안된다. 해젤의 변증법의 주체인 부정의 부정을 통한 긍정으로의 지양은 한반도 통일 운동에서도 유용한 실천적 변증법이다. 왜냐하면 반공이데올로기와 적색공포의 올바른 이해 없이는 남한에 정착된 분단체계의 심층구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색공포는 내면화되면서 냉전체제가 강제한 상호적대감의 삶의 존재양식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은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통일이라는 긍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어진 휴전선을 우리 스스로 거두울 때 진정한 심리·정서적 통일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광일·박용천(1983), 꿈과 망상속의 박해자에 관한 비교고찰.
정신건강연구, 1, 91-98.
- 김동춘(1992), 한국전쟁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한국전쟁과 한국사회
변동. 풀빛.
- 박원순(1990), 전쟁부역자 5만여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역사비평.역사비
평사.
- 이병윤·민병근(1962), 한국인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1), 35-44.
- 장환일(1992), 한국인의 망상특징. 정신건강연구, 11, 63-73.
- 정영태(1992), 일제말 미군정기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비평. 역사
비평사.
- 최문석(1971), 통일의 길목. 학생사.
- Geertz Clifford(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Basic Books,Inc,
Publisher: New York
- Therborn.G.(1980), The Ideology of power and ideology, Verso:
London.